

오순절 후 열일곱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7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9월 2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21 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애” (새 246)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9 번 이사야 (Isaiah) 5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	--	--------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히브리서(Hebrews) 12:1-3</b>	장경국 집사
-------------------------	-----------------------------	--------

설 교 Sermon	“ <b>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b> ” <b>(Great Cloud of Witnesses)</b>	김일선 목사
------------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	-----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	--------------------------	-----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	-----

*찬 송 Hymn	495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 438)	다같이
-----------	-----------------------------	-----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	--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의 길을 걷는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0:27, 엡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글개역 **히 12:1-2상**)

“Wherefore seeing we also are compassed about with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let us lay aside every weight, and the sin which doth so easily beset us, and let us run with patie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NIV **Hebrew 12:1-2a**)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27 (주일)	9/28 (월)	9/29 (화)	9/30 (수)	10/1 (목)	10/2 (금)	10/3 (토)
	삼하23	삼하24	왕상1	왕상2	왕상3	왕상4,5	왕상6
본문	갈3	갈4	갈5	갈6	엡1	엡2	엡3
	겔30	겔31	겔32	겔33	겔34	겔35	겔36
	시78:38-72	시79	시80	시81,82	시83,84	시85	시8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30 오후7:30)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민 27:12-23)
토요 새벽기도회 (10/3 오전6:30)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시 101:18)

지난 주일(9/20) 말씀

“**궁극적인 믿음**” (히 11:32-40)

오늘 본문은 일명, '믿음장'(Faith Chapter, Hall of Faith)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반부(히11:32-35상)의 말씀은 믿음으로 인한 승리와 성공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후반부(히11:35하-40)의 말씀은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온갖 시험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에는 두가지 측면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두가지 측면(믿음의 양면성)을 다 견뎌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궁극적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궁극적인 믿음의 소유하며? (또한)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믿음의 역사(믿음의 승리)는 (장래에) 우리가 얻게 될 궁극적인 믿음의 완성(즉, 종말론적 승리)를 향한 일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히11:32-35상), 2)지금부터 우리 믿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히11:38), (무엇보다도) 3)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궁극적인 믿음의 실체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히11:39-40).

“믿음에서의 승리(축복과 성공)가 고난으로 균형 잡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며, 믿음에서의 고난(거룩과 순결)이 승리(믿음의 역사)로 균형 잡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관념으로 끝나게 된다.”는 말처럼, 궁극적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